

[일본, 2013년 7월] [농식품]

1. 일본지역, 현장 이슈

▶ 2013년 배 생산량 11% 감소 전망

전국과실생산출하안정협의회 2013년산 배 생산개황에 따르면,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 감소한 5872헥타르, 생산량은 11% 감소한 7만7726톤으로 전망

감소 원인은 개화기의 저온·강풍·동해 등에 의한 결실 불량으로, 병해로 인해 생산량이 적었던 전년을 더욱 밀돌 것으로 예상

▶ 세븐 & 아이홀딩스(세븐일레븐 그룹) 최고 순이익 기록

세븐 & 아이홀딩스의 2013년 3~5월기 연결결산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374억엔으로 3~5월기로는 과거 최고를 갱신

주력인 편의점에서 품질을 높인 PB상품의 판매 신장이 큰 성장요인이며, 고전하던 종합슈퍼인 이토요카도도 경영합리화 효과로 채산이 개선되었기 때문임

매출액은 13%증가한 1조3469억엔, 세븐일레븐의 점포수도 368점포 증가하여 15458점으로 확대

고가격대 PB상품인 「세븐 골드」가 견인하여 다양한 상품의 개발확대로 프리미엄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킴. 이익률이 높은 PB상품의 성장으로 영업이익은 10% 증가한 736억엔임

▶ 식품폐기물 감소를 위한 신규정

유통업체연구소에 따르면, 벤더로부터 제조업체에 반품된 가공식품은 연간 1139억엔에 달하며 거래 전체의 1%를 차지함. 식품유통업체는 '12년 10월부터 경제산업성 및 농림수산성과 함께 폐기처분 식품의 삭감을 위한 대책을 검토, 새로운 규정으로 연1000억엔 이상의 폐기 식품 감소를 목표

이에 따라, 이토요카도 등 소매, 제조업체, 벤더 34사는 납입기한 연장의 새로운 규정을 가공식품 전체로 확대할 것을 합의. 우선 8월부터 과자와 음료의 소매점 납품기한을 유통기간의 1/2까지 연장

지금까지 식품업체의 관습에 따르면, 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의 1/3을 지나기 전에 소매업자에게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상미기한 6개월의 식품이라면 벤더는 2개월 이내에 슈퍼에 납품하여 2개월을 지난 식품은 벤더가 제조업체에게 반품하여 대부분이 폐기 처분되어 옴

▶ 한국산 돈육 내장제품 수입 조건

한국산 돈육 내장 열처리 제품의 수입검역은 한일간의 돈육가열육(소세지등) 위생협약과는 별도 조건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수출업체 제한 없이 수입 가능

일본가축전염병예방법 위생조건에 의해 멸균조건(100℃ 이상 끓는 물에서 1시간 이상 소독) 충족 시 소화관(대장, 소장, 방광, 자궁)에 한해 수입이 허용. 2011년도 한국산 대장류 수입통관 통계는 3건이며 실적은 27톤임(농협목우촌등)

▶ 한국산 식품위반 사례

영양고추유통공사에서 수출한 고추가루(김장용 2,000kg, 고추장용 400kg)에서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 0.03, 플루켈코나졸 0.02ppm)이 검출(시모노세끼)

2. 농식품 수입동향 및 전망

- '13. 5월말까지의 일본 전체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3,643,200백만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 수입 1위국은 미국(18.9%), 2위 중국(13.2%), 3위 캐나다(6.5%) 순임

<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액 >

(단위:백만엔,%)

품목	'12년	'12년 1~5월	'13년 1~5월	증감율(%)
전세계	7,917,805	3,307,536	3,643,200	10.1
한국	187,489	74,055	75,674	2.2

자료원 : 일본농림수산물 통계정보

* 단, 한국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HS코드 1류~24류 합계 기준으로 산출

□ 야채

- 5월의 야채 수입량은 전년동월비 92%인 243,315톤으로, 유형별로 보면 「신선 야채」는 78%인 67,807톤, 「냉동 야채」는 100%인 85,223톤, 「염장 등 야채」는 81%인 9,662톤, 「건조 야채」는 81%인 3,778톤, 「식초 조제야채」는 106%인 3,606톤, 「토마토 가공품」은 105%인 31,711톤, 「기타 조제야채」는 100%인 39,877톤, 「기타」는 125%인 1,652톤으로 나타남
- 한국산 야채 수입량은 전년동월비 97%인 5,177톤으로 유형별로 보면 「신선 야채」는 107%인 3,499톤, 「냉동 야채」는 97%인 35톤, 「염장 등 야채」는 81%인 9,662톤, 「건조 야채」는 81%인 3,778톤, 「식초 조제야채」는 106%인 3,606톤, 「토마토 가공품」은 31%인 29톤, 잼이나 조제딸기 등 「기타 조제야채」는 82%인 1,614톤으로 나타남

□ 신선야채

- 5월의 신선야채 67,807톤 중 수입량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토마토가 전년동월비 136%인 551톤, 칼리프라워가 172%인 8톤, 기타 양상추가 123%인 99톤, 기타 버섯류가 115%인 39톤, 멜론이 115%인 5,001톤, 스위트 콘이 526%인 8톤으로 나타남.
- 한편, 수입량이 감소한 주요 품목은 결구양배추가 전년동월비 60%인 2,109톤, 기타 양배추가 64%인 5톤, 양파가 62%인 17,267톤, 표고버섯이 58%인 120톤, 수박이 29%인 57톤, 딸기 51%인 21톤 등임
- 한국산 신선야채 수입량은 전년동월비 107%인 3,499톤으로 주요 품목은 파프리카 2,795톤, 토마토 273톤, 결구 양배추 166톤, 기타 버섯류 37톤, 기타 고추 등 65톤, 멜론 97톤임

□ 가공식품

- 5월 가공식품 수입금액은 1,542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9.3% 증가, 주류를 제외하면 1,343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함. 분류별로 보면, 당류와 음료가 조금 감소하고 그 외의 가공식품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임

□ 알콜음료

- 1~5월의 전체 알콜음료는 전년대비 13.4% 증가, 한국산은 전년대비 2% 감소한 10,482백만엔으로 나타남

□ 원료인상

- 1~5월의 전체 원료인상은 전년대비 44.7% 감소, 한국산은 전년대비 48% 감소한 62백만엔으로 나타남

□ 추잉껌

- 1~5월의 전체 추잉껌은 전년대비 31.9% 감소, 한국산은 전년대비 7% 감소한 25백만엔으로 나타남

< 품목 수입통계(누계기준) >

(단위:백만엔,%)

품목	2012년 한국수입	2012년 1~5월	2013년 1~5월	전년대비 (%)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농식품전체	191,159	3,307,536	3,643,200	10.1	미국	689,677	중국	480,112	캐나다	237,648
멜론(신선)	240	1,443	1,816	25.8	멕시코	1,723	한국	81	뉴질랜드	10
밤	2,696	254	375	47.5	중국	350	한국	13	이탈리아	12
딸기(신선)	240	74	54	△26.9	미국	40	한국	14	-	-
토마토	738	633	1,022	61.6	미국	419	한국	361	뉴질랜드	95
결구양배추	187	1,040	643	△38.2	중국	569	한국	39	대만	34
오이	1.5	11	0.3	△97.1	한국	0.3	-	-	-	-
가지	21	-	2	-	한국	2	-	-	-	-
기타버섯	106	73	80	10.0	한국	49	터어키	9	프랑스	8
고추·피망속	7,586	5,432	5,854	7.8	한국	3,970	뉴질랜드	1,586	네덜란드	272
파프리카	7,235	5,237	5,690	8.7	한국	3,806	뉴질랜드	1,586	네덜란드	272
계육조제품	885	67,534	78,897	16.8	태국	41,050	중국	37,233	브라질	237
추잉껌	54	59	40	△31.9	한국	25	중국	7	캐나다	6
코코아조제품	328	992	912	△8.1	싱가포르	548	한국	163	태국	98
인스턴트커피	1,000	3,422	4,507	31.7	브라질	1,319	한국	807	콜롬비아	533
알콜음료	27,058	78,300	88,820	13.4	프랑스	30,436	한국	10,482	미국	9,076
곤약	105	1,093	976	△10.8	중국	870	인도네시아	63	한국	43
원료인상	169	1,228	679	△44.7	중국	591	한국	62	대만	25

자료원 :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

3. 타국산 경합품목 동향

□ 파프리카

- 전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5,690백만엔. 한국산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3,806백만엔, 2위의 뉴질랜드산은 28% 증가한 1,586백만엔, 네덜란드산은 55% 감소한 272백만엔임. 5월 수입량은 3,194톤으로 전년동월대비 3% 감소, 1kg당 평균 CIF 가격은 318엔으로 전년동월 대비 37엔 낮음. 5월 수입량은 한국이 88%, 네덜란드가 10%, 뉴질랜드가 3%로 구성됨.

□ 기타 버섯

- 전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10.0% 증가한 80백만엔. 한국산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49백만엔으로 나타남. 2위의 터어키산은 10% 감소한 9백만엔, 3위인 프랑스는 작년동일 수준의 8백만엔임.

□ 멜론

- 전체 수입액은 25.8% 증가한 1,816백만엔. 수입 1위인 멕시코산이 30% 증가하여 1,723백만엔, 한국산이 2위로 18% 감소한 81백만엔, 3위가 뉴질랜드로 68% 감소한 10백만엔으로 나타남.

□ 토마토

- 전체 수입액은 61.6% 증가한 1,022백만엔. 미국산이 73% 대폭 증가하여 419백만엔으로 수입처 작년 2위에서 1위로 부상, 한국산이 2위로 31% 증가한 361백만엔, 3위가 뉴질랜드로 58% 증가한 95백만엔으로 나타남. 5월 수입량은 551톤으로 전년동월대비 36%를 웃돌았음. 일본 국내산 출하량은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가격도 예년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으나 업무용 수요로 수입이 증가 추세

□ 알콜음료

- 전체 수입액은 13.4% 증가한 88,820백만엔. 1위인 프랑스산이 10% 증가한 30,436백만엔, 2위인 한국이 2% 감소한 10,482백만엔, 3위인 미국이 32% 증가한 9,076백만엔임

□ 코코아조제품

- 전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8.1% 감소한 912만엔. 수입 1위인 싱가포르가 21% 감소한 548백만엔, 2위인 한국이 17% 증가한 163백만엔, 3위인 태국은 작년 3위국인 말레이시아를 웃돌아 98백만엔으로 나타남

4. 동향 분석 [인스턴트커피]

□ 시장규모

- 일본 인스턴트커피 시장은 레귤러타입이 수요가 침체된 반면, 설탕이나 밀크가 들어있는 믹스타입이 대폭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12년 판매액은 레귤러타입이 154,200백만엔으로 81%를 구성하고 믹스타입이 36,100백만엔으로 19%를 차지함
- 제조방법으로 보면, 스프레이 드라이가 가격면에서 유리하여 저가격지향의 소비자로부터 지지가 큼. 프리즈 드라이는 가격은 비싸지만 맛과 향의 품질면이 우수하여 프리미엄상품을 지향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음

□ 유통동향

- 시판용이 95% 이상을 차지하며, 컵 자동판매기 등의 업무용이 3%, 과자나 디저트에 사용되는 가공용이 2%로 구성됨
- 편의점은 도시부를 중심으로 오피스 수요 확대에 힘입어 취급량을 늘리고 있으나, 양판점이나 드럭스토어에 비해 가격이 비싼편으로 신장율은 비교적 적음

< 일본 인스턴트커피 시장규모 추이 >

(단위: 톤, 백만엔)

2011년		2012년		2013년(예측)	
판매량	판매액	판매량	판매액	판매량	판매액
49,600	184,200	53,500	190,300	55,400	192,400

자료원 : 후지경제 「식품마케팅편람」

< 일본 인스턴트 커피 시장 주목 상품 >

		
상품명 : 스타벅스 비아 커피 엡센스 메이커 : 아지노모토 제네럴후드 용량 : 2P(종이컵) 금액 : 258엔 *2012년 10월 발매 *편의점 전용판매 상품 *스틱커피 들이로 강한향이 특징	상품명 : 브랜디 스틱 카페오레 메이커 : 아지노모토 제네럴후드 용량 : 9.5g*10P(종이박스) 금액 : 260엔 *2013년 2월 발매 *무설탕, 진한 커피와 밀크의 카페오레	상품명 : 네스카페 골드브랜드 (에코&시스템팩) 메이커 : 네슬레 일본 용량 : 120g 금액 : 688엔(커피머신 별도 판매) *커피머신인 「네스카페 바리스타」와 세트 판촉의 시너지 효과로 유저 대폭확대

< 한국산 커피조제품 일본 수출실적 >

(단위: 톤, 천불, %)

2011년		2012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3,672	12,406	4,228	18,268	15.1	47.3

□ 수입동향

- 한국산 커피조제품의 일본 수출실적을 보면, 12년은 물량이 15.1% 증가한 4,228톤, 금액으로는 47.3% 대폭 증가한 18,268천불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산 수입 증감사유

- 한국산 커피류 전체 일본 수출실적으로는, 11년 수출금액이 약2배까지 증가하였으나, 12년 중계 무역으로 일본에 수출되어 온 생두 수출이 감소하여 수출금액은 15.8% 감소한 29,044천불(6,186톤)로 나타남
- 단, 커피믹스 등 커피조제품의 수출실적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남양유업이 컵타입 프렌치 카페를 훗카이도유업과 수출계약 체결, 일본유통업체 다이에를 통해 판매하는 등 수출이 기대됨

□ 시사점

- 커피제조품의 경우 OEM제조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커피 브랜드 제품의 수출 발굴 노력으로 수출증대가 기대됨
- 일본의 믹스타입 인스턴트커피 시장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 일본의 각사에서 주목할 것으로 예상. 1인당 음용회수도 늘어나고 있어 상품도 한층 다양화될 것으로 보임
- 일본 인스턴트커피는 편의점의 PB상품화가 활발하며 가격도 양판점과 동일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증대가 기대되고 있음

<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